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4, pp. 329-338,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4.329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최아라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Ara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Study,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G시의 중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18.0을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긍정심리자본 모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긍정심리자본 변인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복원력이 가장 높았고, 희망, 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낙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있어 환경적 요인인 부모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심리적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도록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안녕감,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34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srt,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ird, in terms of individual factors, resilience had the greatest effe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ed by hope, open communication with a mother, open communication with a father, optimism, in that order. The result for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open communication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highlights the important roles played by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f environment variabl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psychological variable in improving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ng fundamental insights into a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appy life.

Key Words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ts

*Corresponding Author : Ara Choi(archoi@gwangju.ac.kr)
Received January 27, 2021
Revised February 16, 2021
Accepted April 20,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신체적·심리적·성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가정, 학교,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부여받아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학업성취중심의 사회, 경쟁적인 학교 문화, 놀이 및 여가 시간 부족 등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안녕감은 더욱 위협받는다고 하겠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낮은 안녕감은 제11차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2019' 결과 삶의 만족 지표가 OECD 국가 중 꼴찌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

심리적 안녕감이란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심리적 측면을 의미하며[2], 개인의 원활한 기능수준과 적응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3].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 정서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잘 기능하는 것을 일컫는다[4,5]. 청소년 시기의 심리적 안녕감은 건강하고 적응적인 생활 속에서 삶의 만족감을 갖게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 발달의 주요 지표가 되는 반면[6],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우울, 학교부적응, 자살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심리적 안녕감은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7]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가? 다양한 개입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본 결과 성별, 학급, 학업수준, 경제적 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있고[8-10], 부모양육태도, 교사지지, 또래관계 등의 환경적 변인이 있으며[11-13],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 심리적 변인[9,14,15] 등이 있다. 즉,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 심리적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16].

먼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적 변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13],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를 매개하는 도구가 바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다.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여 관계를 맺고, 가르침과 배움을 이어간다. 즉, 부모-자녀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감정, 느낌, 생각 등을 비언어적, 언어적 요소를 통해 표현하고 수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하며[17],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응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8]. 특히 신체, 정서가 극심하게 변화하는 사춘기 시기에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 인성 및 행동 발달 등 자녀의 발달과업 및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크게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으로 구분된다. 긍정적인 의사소통에는 상호개방성, 수평성, 자율성 등의 요인이 고려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에는 상호차단성, 폐쇄성, 수직성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19]. 긍정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완성하도록 이끌고,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20], 부모-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21].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안녕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22-25].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김정민과 이유리[16], 소선숙과 김청송[26]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두 번째로 개인 내 심리적 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긍정심리학의 학문적 사조와 함께 긍정심리자본이라는 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긍정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Luthans[27]가 제안한 개념으로 개인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개념을 살펴보면 Luthans와 Youssef[28]는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으로 개인이 가진 긍정적인 심리역할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Martin, Kuiper, Olinger와 Dance[29]는 일상적 또는 도적전 상황에서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라 하였다. 즉, 긍정심리자본이란 개인이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Luthans, Avey, Avolio와 Peterson[30]은 긍정심리자본이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self efficacy)이란 일이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희망(hope)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및 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하고, 복원력(resilience)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며, 낙관성(optimism)이란 현실적 전망을 유지하면서 갖는 긍정적인 태도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라 할 수 있다[31]. 또한 Luthans와 Youssef[32]에 의하면 긍정심리자본은 상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긍정심리자본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영남[33]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환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환경적 변인 중 부모-자녀 의사소통, 심리적 변인 중 긍정심리자본을 선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 및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중학교 3곳의 1-3학년 남녀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에 사춘기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 청소년을 잘 대표한다고 보았으며, 심리적 · 사회적 적응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116	49.6
	Female	118	50.4
Grade	1	80	34.2
	2	65	27.8
	3	89	38.0
Economic condition	Low	30	12.9
	Average	143	61.6
	High	59	25.5
Academic achievement	Low	16	6.9
	Average	91	84.2
	High	19	8.2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below 10 minutes	66	28.2
	10~30 minutes	81	34.6
	30 minutes~1 hour	49	20.9
	1~2 hour	28	12.0
	above 2 hour	10	4.3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below 10 minutes	22	9.4
	10~30 minutes	62	26.5
	30 minutes~1 hour	74	31.6
	1~2 hour	47	20.1
	above 2 hour	29	12.4

Note. N=234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남학생은 116명(49.6%), 여학생은 118명(50.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80명(34.2%), 2학년 65명(27.8%), 3학년 89명(38.0%)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을 살펴보면 상위층은 59명(25.5%), 중위층은 143명(61.6%), 하위층은 30명(12.9%)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수준을 살펴보면 상위층은 19명(8.2%), 중위층은 91명(84.2%), 하위층은 16명(6.9%)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본 결과 10분 미만은 66명(28.2%), 10~30분 미만은 81명(34.6%), 30분~1시간 미만은 27명(11.5%), 2시간 이

상은 10명(4.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본 결과 10분 미만은 22명(28.2%), 10~30분 미만은 62명(26.5%), 30분~1시간 미만은 74명(31.6%), 2시간 이상은 27명(11.5%)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평균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시간보다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비교적 길다고 나타난 송순옥[35], 조윤미 이숙[3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긍정심리자본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이다.

2.2.1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arens와 Olson[18]이 개발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민하영[37]의 검사지 중 개방적 의사소통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피검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개방적이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부와의 의사소통과 모와의 의사소통 문항을 10문항씩 따로 두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며, 부-자녀 간 의사소통 .91, 모-자녀 간 의사소통 .90으로 나타났다.

2.2.2 긍정심리자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Luthans, Avolio, Avey와 Norman[38]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를 국내 청소년에 맞게 번안·수정한 최아라[3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 척도는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피검자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긍정심리자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며, 자기효능감 .90, 희망 .88, 복원력 .80, 낙관성 .78로 나타났다.

2.2.3 심리적 안녕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Diener 등[39]이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2.2.4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은 남자는 0, 여자는 1로 더미코딩 하였고, 학년은 1학년은 1, 2학년은 2, 3학년은 3으로 코딩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가정경제수준을 하위권 1, 중위권 2, 상위권 3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학업취수준은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성취수준을 하위권 1, 중위권 2, 상위권 3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부모 대화시간은 10분 미만은 1, 10~30분 미만을 2, 30분~1시간 미만은 3, 1~2시간 미만은 4, 2시간 이상은 5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2.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G시의 중학교 3곳을 임의표집하여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267부가 수거되었으며 그 중 기입항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거하고 총 234부의 자료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부모 및 학생이 설문에 대한 동의서를 배포하고, 연구에 동의를 한 학생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Technical Statistics Major Variable

variable		range	M	S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of father	1-5	3.55	.81
	open communication of mother	1-5	3.74	.7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1-5	3.56	.77
	Hope	1-5	3.55	.72
	Resilience	1-5	3.44	.68
	Optimism	1-5	3.39	.64
Psychological well-being		1-7	5.41	1.06

Note. N=234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평균은 3.55, 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평균은 3.74로 모두 중간점수(3.0)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평균은 3.56, 희망 평균은 3.55, 복원력 평균은 3.44, 낙관성 평균은 3.39로 나타나 모두 중간점수(3.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5.41로 중간점수(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고, 주요변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r=-.14,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가정경제수준(r=.21, p<.01), 학업성취수준(r=.20, p<.001), 부-자녀 대화시간(r=.28, p<.001), 모-자녀 대화시간(r=.23,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r=.64, p<.001)과 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r=.58, p<.001) 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r=.65, p<.001), 희망(r=.72, p<.001), 복원력(r=.70, p<.001), 낙관성(r=.64, p<.001)과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요변인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계수가 .7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선정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04	1											
3	-.09	-.11	1										
4	.03	-.09	.22**	1									
5	.19**	-.07	.09	-.03	1								
6	.29***	-.06	.06	.10	.60***	1							
7	.06	-.06	.19**	.16*	.49***	.38***	1						
8	.13*	-.06	.13	.15*	.34***	.49***	.80***	1					
9	.08	-.12	.24***	.47***	.19**	.19**	.52***	.45***	1				
10	.05	-.08	.18**	.38***	.19**	.18*	.54***	.43****	.77***	1			
11	.00	-.06	.19**	.32***	.16*	.16**	.47***	.39***	.67***	.77***	1		
12	-.12	-.08	.18**	.19**	.18**	.17**	.49***	.46***	.50***	.64***	.66***	1	
13	.04	-.14*	.21**	.20***	.28***	.23***	.64***	.58***	.65***	.72***	.70***	.64***	1

Note. N=234
1=gender, 2=grade, 3=economic condition, 4=academic achievement, 5=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6=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7=functional communication of father, 8=functional communication of mother, 9=self-efficacy, 10=hope, 11=resilience, 12=optimism, 13=psychological well-being
*p<.05, **p<.01, ***p<.001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 구학적 변인 중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성별은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만 투입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산출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는 1.02~3.98로 분산팽창계수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Durbin-watson값은 1.87로 2에 가까워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의 투입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 순서로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하고자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및 복원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9,40]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2단계에 투입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을 3단계에 투입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형 1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9.59, p<.001), 심리적 안녕감을 약 16% 설명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학업성취수준(β=.27, p<.001)과 부-자녀 대화시간(β=.24, p<.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2에서는 모형 1에 부모-자녀 기능적 의사소통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7.90, p<.001),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약 45% 설명하였으며, 모형 1에 비해 설명력이 26% 증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학업성취수준(β=.18,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는 부-자녀 기능적 의사소통(β=.44, p<.001)과 모-자녀 기능적 의사소통(β=.27,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3에서 모형 2에 긍정심리자본 변인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7.88, p<.001), 청소년의 안녕감을 66% 설명하였으며, 모형 2에 비해 설명력이 21% 증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 중에서는 부-자녀 의사소통(β=.16, p<.05)과 모-자녀 의사소통(β=.19, p<.01)이 통계적을 유의하였으며, 새롭게 투입된 긍정심리자본 변인 중에서는 희망(β=.22, p<.01), 복원력(β=.25, p<.001), 낙관성(β=.13,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군은 긍정심리자본, 부모-자녀 의사소통, 사회인구학적 변인군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

Table 4.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demographic variables	Grade	-.09	-.07	-.09	-.07	-.07	-.06
	Economic condition	.15	.10	.05	.04	.01	.01
	Academic achievement	.27	.27***	.19	.18***	.01	.01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father	.23	.24**	.05	.05	.06	.07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a mother	.03	.04	-.11	-.12	.07	.08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with a father			.55	.44***	.20	.16*
	open communication with mother			.38	.27***	.25	.19**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12	.09
	Hope					.32	.22**
	Resilience					.39	.25***
	Optimism					.22	.13*
F		9.59***		27.90***		57.88***	
R^2		.16		.45		.66	
ΔR^2		.16		.26		.21	

Note. N=234
*p<.05, **p<.01, ***p<.001

보면 복원력, 희망, 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낙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원력이 높을수록, 희망이 높을수록, 모-자녀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부-자녀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수록, 낙관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환경적 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개인 내 심리적 변인인 긍정심리자본과의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군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년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취수준, 부-자녀 대화시간, 모-자녀 대화시간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모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긍정심리자본 변인군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 모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 의사소통, 긍정심리자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설명력은 66%였다. 청소년의 안녕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군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인, 긍정심리자본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복원력, 희망, 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낙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 부-자녀 개방적 의사소통과 모-자녀 개방적 의사소통 모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김정민과 이유리[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부모-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나미희[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긍정심리자본 변인군에서는 희망, 복원력, 낙관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thans, Avolio와 Avey[41]는 높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으며, Luthans와 Youssef[32]는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였다. 또한 Luthans, Norman, Avolio와 Avey[42]는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희망, 복원력, 낙관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려움에서 쉽게 회복하는 특성을 가져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인 희망, 복원력, 낙관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고영남[3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자기효능감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을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선정하여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14,15]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과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박현량[34]의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 하위변인 중 자기효능감만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처럼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상위개념으로 접근되어야 함과 동시에 긍정심리자본의 하위변인들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이해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및 긍정심리자본 하위변인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안녕감과 관련이 있으며, 부-자녀 의사소통, 모-자녀 의사소통 모두 청소년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시간은 청소년의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화의 시간 즉 양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의사소통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역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교육 및 의사소통훈련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할 때 그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도 청소년의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므로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적용한다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을 G시의 중학생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표집지역을 확대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여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질적 요인, 학교요인 등 더 다양한 변인을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Y. S. Youm. (2019). *Korean children and youth well-being index survey, 2019 :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2] McDowell, I., & Newell, C, (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New Yotk: Oxford.

[3] Keyes, C. L. M., & Lopez, S, J. (2002).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s.*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otive Psychology(pp.45-5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 Chang, E. C.(2006). Perfectionism and dimension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college student sample: A test of a stress-mediation model.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9),* 1001-1022.

[5] Ryff, C. D. & Key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6] H. A. Yu. & Y. H. Ki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aily Stress and Well-Being : Focus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1),* 33-52.

[7] H. H. Cho.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8] M. A. Park., S. K. Kim., & S. M. Cheon. (2013). A meta analysis on the factors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 be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0(3),* 627-652.

[9] K. S. Kim, & H. J. Lee. (2017).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0*(2), 211-220.

[10] Y. S. Oh. & J. Y. Lee. (2014). What is Important for the Happi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21(2),* 1-31.

[11] E. H. Kim & M. J. Kim. (2020). The Effect of Parents'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Grit and Academic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5),* 405-431.

[12] M. J. Lim. & J. U. Kim. (201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ppearance Satisfaction,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7(2),* 93-125.

[13] Y. G. Hwang. & W. Y. Choi. (2019).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general high school Adolescents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 of Lifetime Goal.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7(4),* 92-101.

[14] S. H. Kim., S. M. Cheon., S. W. Lee., & S. O. Lee.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and self efficacy perceived by youth affects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4(1)*, 1-14.

[15] S. W. Yoon. (2017).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t taekwondo trainee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6(2),* 323-338.

[16] J. M. Kim. & Y. L. Lee. (2010).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f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3),* 13-26.

[17] Y. H. Jang. (2018). *The Effects of Self-Concept, Parental Competency, and Communication on Parent-Child Relationship in Primary School Parent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18] Barnes, H. & Olson, D. H. (1982). Children's and parents' daily stressful event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6),* 591-605.

[19] Y. H. Kim. & H. J. Moon. (2019).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Mediated Effect of the Self-efficacy. *Forum for Youth Culture, 59,* 35-54.

[20] M. K. Jeon. & M. S. Kim. (2013).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 293-302.

[21] K. J. Yu. & E. J. Kim. (2019).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6(2),* 53-65.

[22] M. S. Kim., S. K. Park., & S. W. Kim. (2020). Path Analysi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Children's Happiness, Game Over-engagement, and Problematic Online Behavior.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2(3),* 49-68.

[23] H. J. Kim. (2010). *(A) study of Factors explaining Adolescents' Well-being by develop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24] M. H. Na. (2019). *Influence of Parent - Child Commun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 -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25] Reuter, M. A. & Conger, R. D. (1995). Interaction style, problem solving behavior, and family problem solving effectiveness. *Child Development, 66(1)*, 98-115.

[26] S. S. So. & C. S. Kim. (2016). The Study on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7),* 375-400.

[27] Luthans, F. (2002).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6),* 695-706.

[28] Luthans, F. & Youssef, C. 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29] Martin, R. A., Kuiper, N. A., Olinger, L., & Dance, K. A. (1993). Humor, Coping with stress,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6(1)*, 89-104.

[30] Luthans, F., Avey, J. V., Avolio, B. J., & Peterson, S. J. (2010). The development and resulting performance impa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21(1)*, 41-67.

[31] H. R. Park. (2018).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Relationships between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Well-being in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32] Luthans, F. Youssef, C. M. (2007).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3(3)*, 321-349.

[33] Y. N. Ko.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 1325-1345.

[34] A. R. Choi. (2017). *The effect of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35] S. S. W. (2017).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types and conversation time between parent and child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Woosukl University: Wanju.

[36] Y. M. Cho. & S. Lee. (2008). The Effe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Adolescence and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9(4)*, 641-658.

[37] H. Y. Min.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degree of misconduct, parent-child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tio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38]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39] Diener, E., Wirtz, D., Biswas-Diener, r., Tov, W., Kim-Prieto, C., Choi, D. W., & Oishi, S. (2009). *Assessing*

Well-Being. New measures of well-being(pp.247-266). NY: Springer.

[40] E. M. Kim. & J. S. Jeon.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 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2(4)*, 215-234.

[41] Luthans, F., Avolio, B. J., & Avey, J. B. (2014).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PCQ) Manual*. Mind Garden Inc.

[42] Luthans, f. Norman, S., Avolio, B., & Avey, J. (2008).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supportive organizational climate-employee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9(2)*, 219-238.

최 아 라(Choi, Ara) [정회원]

·2006년 2월 : 전남대학교 학사(가정학사)
· 2008년 2월 : 전남대학교 석사(생활과학석사-아동학)
· 2017년 2월 : 전남대학교 박사(생활과학박사-아동학)
· 2020년 2월 ~ 현재 :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발달, 아동상담, 보육, 긍정심리 등
· E-Mail : archoi@gwangju.ac.kr